

ECONOMICS NEWSLETTER 제33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발행인 : 김재영 · 이근 / 편집인 : 조성진 / 편집조교 : 정진용 / 발행일 : 2015년 8월

이지순 교수, 제45대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선임



우리 학부의 이지순 교수가 2월 24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제45대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지순 교수는 1972년 본교 상과대학에서 경제학사를 취득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1979년에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석사를 취득하고, 1983년에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이후 1985년부터 본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30년 간 거시경제학, 경제성장론 등의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힘써 왔다. 또한 한국계량학회장(2002년), 한국금융학회장(2006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2008년) 등을 역임하면서 거시경제이론 및 경제성장론 분야에서 학문적 발전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도 기여해 왔다.

한국경제학회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학문적 토양을 마련하고자 1952년 11월 부산에서 소수의 경제학자들이 모여 창립한 학술단체로, 이후 60여 년 간 경제이론, 정책, 역사 및 설정 등에 관한 연구와 보급을 목적으로 경제학 연구와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이론적, 실정적 조사 및 연구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현재 한국 경제학 관련 분야의 연구자 4500여명이 이 학회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이근 교수,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자로 선정



우리 학부의 이근 교수가 제60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사회과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학술원(회장 권숙일)은 2015년 7월 10일(금) 개최한 총회에서 제60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자 6명을 선정하였는데, 사회과학부문에서 우리 학부의 이근 교수가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학술원상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기초, 응용)부문에서 학술연구 또는 저작이 매우 우수하여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자에게 수여되고 있는 상으로서 올해까지 총 23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그리고 부상으로 각 5천만 원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근 교수는 후발국이 선발국의 경제를 따라잡는 현상을 스펀티카파의 혁신체제론을 이용해 분석한 저서로 이 학술원상을 받게 되었다. 이 교수는 수상 저서에서 “후발국 기업은 기술수명이 짧은 ‘short-cycle 기술’ 분야에 주력하는 것이 추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교 사회대 소속 교수로서 이전의 수상자는 43회(1998년)에 수상하신 신용하 교수이다.

My experience with the Economics Department in SNU



Elias Sanidas 교수

This experience is unique in many ways. The Department of Economics in SNU is very large with many professor/colleagues and many students. Thus, I had the opportunity to communicate with many of my colleagues and exchange some ideas about various issues, educational and social. The students in the Department kept my interest in them very high due to their very high qualities such as motivation and thirst for knowledge.

In relation to other Universities I have been with before, the SNU Economics students are unique in the sense that they generally want to be first in whatever they learn; hence they study hard to reach very high levels of performance. Besides their hard work, these students also have a high level of curiosity, a high level of research motivation, and a high level of ambition for further studies.

Another aspect I enjoyed with my students was their class participation; they have been keen to say their opinion in the class and they enjoyed doing so. Their opinions and answers regarding my questions have been in general good, interesting and sophisticated. Also, I cannot ignore another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ese SNU Economics students: their high respect for their professors. This respect is very precious for me and I respect them for that.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from writing this brief report to give an advice to SNU Economics students; economics as a science is a very useful and important science in social sciences. Hence studying

economics will always be very rewarding in planning a student's career. For example there are many possibilities for jobs in many industries when having degrees in economics: public departments and institutes,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big and medium corporations, consul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chools and universities, etc.

My experience in SNU Economics has also been unique because it gave me the opportunity to study and research on the Korean economy and society. This in itself is a privilege because Korea is a country that should be copied or mimicked regarding its successful economic policies. However, even economic development depends primarily on the quality of people, and I had in this respect the opportunity to see this quality directly through my communication with Korean people, either at University level or at other layers of Korean society. In general regarding my research while in SNU Economics, I have been prolific in publications in both SSCI and other types of journals.

Finally other aspects of my unique experience in SNU Economics include the beautiful campus of SNU, where life is smooth amongst trees and green footpaths; very lively subway stations around SNU with many restaurants and shopping outlets; the particular fame of SNU Economics to most people in the Korean society which makes it an honor to be part of it as a professor (or student); the opportunity I had to be interviewed by Arirang TV or to be invited to radio programs mainly because of this fame; etc.

Overall, it is a pleasantly memorable experience to have been professor at SNU Economics during the last 6 years or so. I wish it could continue for more years.

경제학부 학술행사

SNU Workshop on Advances in Microeconometr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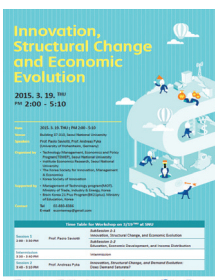
2015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 컨벤션 센터에서 '서울대학교 미시계량경제학 국제 워크숍(SNU Workshop on Advances in Microeconometrics)'이 개최되었다. 이 국제 워크숍은 서울대 경제학부 BK21플러스 사업단과, 경제연구소, 'Center for microdata methods and practice'가 공동으로 학술교류와 지속적인 국제적 학문공동체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미시계량경제학 분야의 연구들을 공유하고 연구 방법과 지속적인 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워크숍에서는 17건의 국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미시계량경제학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지력이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관심 분야의 우수한 연구 지식을 접하며 지식의 저변을 넓혔다. 논문발표에 이어, 특별히 준비된 BK참여대학원생을 위한 연사들과의 석찬 시간은 학생들이 미래의 잠재적 멘토들에게 앞으로의 진로와, 그들의 연구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황윤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동경대학교 Hidehiko Ichimura 교수의 "The Influence Function of Semiparametric Estimators"라는 연구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UBC의 송경철 교수가 "Finite Sample Inference on Two-Sided Matching Models"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UCL의 Toru Kitagawa 교수가 "Who should be Treated? Empirical Welfare Maximization Methods for Treatment Choice"라는 주제로 연구내용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세션은 서울대학교 이석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베이징 대학의 Song Xi Chen 교수가 "High Dimensional Generalized Empirical Likelihood for Moment Restrictions with Dependent

Data"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동경대학교의 Kengo Kato 교수가 "Central Limit Theorem and Bootstrap in High-Dimension"이라는 연구를 설명했다. 이후 세 번째 세션에서는 USC Hyungsik Roger Moon 교수의 사회로 UCL의 Dennis Kristensen 교수의 "On the Nonparametric Identification of Multiple Choice Models" 연구, 그리고 싱가포르 경영대학원 Liangjun Su 교수의 "On Time-Varying Factor Models: Estimation and Inference" 발표가 차례로 이어졌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김재영 교수가 사회를 보았으며 서울대학교 서명환 교수가 "Is There a Jump?" 연구를, 그리고 동경대학교의 Shimotsu Katsumi 교수가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Normal Mixture Regression Models" 연구를 발표하는 것으로 학술대회 첫 날이 마무리되었다.

두 번째 날의 첫 번째 세션은 서울대학교 류근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UCL의 Adam Rosen 교수의 "Identification of the Distribution of Valuations in an Incomplete Model of English Auctions", 그리고 UCL의 Jean-Marc Robin 교수의 "Nonparametric Estimation of Non-Exchangeable Latent Variable Models", 마지막으로 Boston College Arthur Lewbel 교수의 "Necessary Luxuries: A New Social Interactions Model, Applied to Keeping Up With the Joneses in India" 연구발표가 있었다. 오후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서명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UCL의 Martin Weidner 교수가 "Nonlinear Panel Models with Interactive Effects"라는 연구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HKUST의 Xun Lu 교수의 "Shrinkage Estimation of Dynamic Panel Data Models with Interactive Fixed Effects" 연구발표가 있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UCL Andrew Chesher 교수의 사회로 HKUST의 Songnian Chen 교수가 "Quantile Regression with Time-Varying Regressors" 연구를 발표했으며 청화대학교의 Shengjie Hong 교수의 "How Likely to Be Caught: Identification and Estimation of Strategic Misreporting" 연구설명, 마지막으로 Academia Sinica의 Le-Yu Chen 교수가 "Breaking the Curse of Dimensionality in Conditional Moment Inequalities for Discrete Choice Models" 연구를 발표하는 것으로 본 학술대회가 종료되었다.

Innovation,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Ev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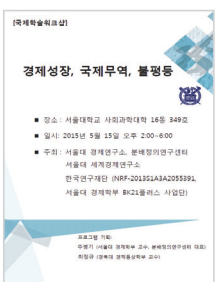


2015년 3월 19일 서울대학교 37동 310호에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 MOT 사업단, 서울대 BK21+창의지식융합인재양성사업단의 주관으로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본 행사에서는 프랑스 국립농학연구소(INRA)의 Grenoble Applied Economic Laboratory (INRA-GAEL)의 Pier Paolo Saviotti 교수와 Hohenheim 대학교의 Andreas Pyka 교수가 주 강연자로 나왔다. 첫 번째 세션에서 Pier Paolo Saviotti 교수는 "Innovation,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Evolution"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Educ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income distribution"이라는 연구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두 번째 세션에서는 Andreas Pyka 교수가 "Innovation, Structural Change and Demand Evolution: Does Demand Saturate?"라는 연구를 발표하는 것으로 세미나를 마쳤다.

Innovation,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Evolution



Growth Models" 연구발표가 있었다. 이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교 류근관 교수의 사회로 로체스터 대학교 장용성 교수가 "Pareto Weights in Practice: Income Inequality and Tax Reform"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김영식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고려대학교 이우진 교수가 "Capital in South Korea: 1976-2012"라는 연구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세션은 서울대학교 안도경 교수의 사회로 UIBE의 Jiong Gong 교수가 "The Tradeoff of the Commons under Stochastic Use"라는 연구발표를 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가 사회를 보았으며 허난대학교 Baomin Dong 교수가 "The Impact of First Sino-Japanese War on China's Terms of Trade and Trade Balance"를 주제로 발표를 함으로서 워크숍을 마무리지었다.

교수수상 및 동성

류근관 교수, 2015년 관악교수테니스대회 복식 A조 우승

2015년 관악교수테니스대회 복식 A조에서 류근관 교수 팀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 대회는 서울대학교 관악교수테니스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을 두 조로 나누어, 일 년에 두 번(춘·추계 대회) 개최되고 있다.

류근관 교수, 2015년 총장배 구기대회 테니스 복식 A조 우승



2015년 총장배 구기대회의 테니스 종목에서 류근관 교수가 윤 알트만 교수(산업공학과)와 팀을 이뤄 남자 복식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지난 두 번의 체육대회 복식 부문에서도 우승한 전력이 있는 류근관 교수는 “올해의 파이널 경기가 여태 겪은 경기 중 제일 어려웠던 것 같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영훈 교수, 2014년 Coghlan Prize 수상



우리 학부 이영훈 교수가 2014년 Coghlan Prize를 수상하였다. Coghlan Prize는 매년 'Australian Economic History Review'에 게재된 논문들 중 심사를 거쳐 최고의 논문을 투고한 저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영훈 교수는 “Economic Stagnation and Crisis in Korea during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라는 논문을 2014년 3월에 투고하여 Coghlan Prize를 수상하였다.

이철희 교수, 2015년도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로 선정



이철희 교수는 지난 5월 한국연구재단 2015년도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인문사회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역량을 지닌 학자를 지원하여, 우수학자가 저술을 통해 그 동안의 연구업적을 집대성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교수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3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건강과 인적자본형성의 생애초기 결정요인: 한국의 자연적 실험으로부터의 증거”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영섭 교수, 제45회 매경이코노미스트상 수상



우리 학부 전영섭 교수가 ‘제45회 매경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하였다. 매경이코노미스트상은 1971년 처음 제정돼 올해 45회째를 맞는 국내 최고의 경제·경영학자 대상 학술상으로, 학문적 성과뿐 아니라 현실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 학자들에게 주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영섭 교수는 일정한 규칙 아래 경매를 통해 서비스 순서를 정하는 경우, 어느 위치부터 경매를 붙이는가에 따라 고객들 간 자원배분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힌 ‘대기 문제에서 서비스 순서 경매와 재판매에 대한 연구(Auctioning and selling positions: A non-cooperative approach to queueing conflicts)’를 경제학 분야 최고 학술지로 손꼽히는 『Journal of Economic Theory』에 작년 5월에 게재하는 등 열정적으로 수준 높은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심사위원을 맡은 김영배 교수(연세대 경제학과)는 전 교수의 연구 성과는 다목적 담의 비용배분, 유산상속, 대중교통의 수입 배분, 공항 활주로의 이용요금 부과, 시베리아 가스관 건설비용의 배분, 그리고 여러 국가를 흐르는 강물의 배분 등 경제주체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는 다양한 비용·편익 배분 문제에서 공정한 해법을 찾는 데 널리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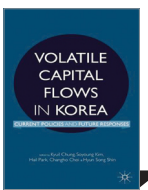
교수 신규임용



Yves Gueron 교수가 2015년 9월 경제학부 조교수로 임용될 예정이다. Gueron 교수는 2005년 프랑스 렌 제1대학교(Université de Rennes 1)에서 경제학 학사학위를 받았고, 2006년에는 런던 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경제학(Econometrics and Mathematical Economics) 석사학위와 National School of Statistics and Information Analysis에서 통계학(Statistics)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3년에 런던대학교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미시경제학 및 게임이론이다. 부임 이후 첫 학기인 2015년 가을학기에 Gueron교수는 학부에서 미시경제이론을 강의할 예정이다.

교수 신간 안내

Volatile Capital Flows in Korea: Current Policies and Future Responses



정규일, 김소영, 박하일, 최창호, 신현송 편저
Palgrave Macmillan (2014년 12월 17일 출간)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한국은 고통스러운 재건 과정을 거쳐 새로운 국제 경제 정책 틀을 마련했다. 이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전제로 거시 경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처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충분한 양의 외환을 외환 보유고에 적립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본 시장은 국제 금융위기 기간 동안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렸다. Volatile Capital Flows in Korea는 이러한 한국의 자본 유입 변동 경험을 요약하고, 경제적 결과 분석, 정책 평가와 함께, 앞으로 시행되어야 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책에서는 자본 유입의 변동성이 어떻게 거시 경제와 한국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국제 금융위기 전에 시행되었던 주요 위기 예방 정책을 평가하고, 외환 스왑(FX 스왑)과 통화 스왑 시장의 문제점을 논할 것이다. 또한 책에서는 최근 시행된 거시 안전성 규제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한국 금융 시스템의 위기 후 회복 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장기 지표를 제안한다.

경제학원론 5판



이준구, 이창용 지음
문우사 (2015년 02월 20일 출간)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의 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그동안 눈부신 이론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자부해 왔지만, 위기의 발생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고 위기의 대응과정에서도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자칫하면 경제의 위기가 경제학의 위기로 비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공황의 어둠 속에서 케인즈 경제학이 태동했듯, 위기의 와중에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탄생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바로 이 경제와 경제학의 위기가 이번 개정작업의 핵심 포인트였다. 지금 이

순간 세계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업데이트 작업이 우리의 주안점이었다는 말이다. 새로 추가된 제38장 위기의 경제학은 이런 노력의 산물로, 이 장이 추가됨으로써 가장 업데이트된 경제학원론임을 자부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세계경제의 격류와 맞서고 있는 공저자 이창용 박사 덕분에 한층 더 생생한 현장감을 얻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는 없으나 그 밖에도 이런저런 부분에서 상당한 정도의 개정작업을 수행했다. 조금이라도 흐름에 뒤떨어지는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책 전체를 다시 쓰는 기분으로 새 기운을 불어넣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인간이 하는 일이라 완벽을 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아직도 남아 있는 미진한 부분은 다음 번 개정작업의 숙제로 남겨 놓으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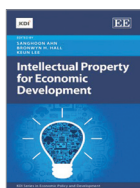
Developing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University-Industry Interactions in the Global South



이근 외 3인 편저
Edward Elgar (2015년 1월 30일 출간)

Interactions between firms and universities are key building blocks of innovation systems. With a focus on developing countries, this book presents novel comparative research spanning three continents. The result is a more universal and dynamic view of the shaping and reshaping of interactions between firms and universities within different countries at various stages of development. Through expert contributions, a combination of empirical investigations and theoretical discussion are presented, existing studies on innovation systems are quantified and further avenues of research suggested. Readers will establish a more universal understanding of the vibrant relationship between firms and universities, and how this results in innovation for the future. Scholars of innovation, evolutionary economics,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and development studies will find the original research to be of great value. This book will also appeal to public research organizations and policymakers.

Intellectual Property for Economic Development



이근, 안상훈, Bronwyn H. Hall 편저
Edward Elgar (2014년 8월 29일 출간)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serves a du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While it promotes innovation by providing legal protection of inventions, it may retard catch-up and learning by restricting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Does stronger IPR protection in a developing country encourage technology development in or technology transfer to that country? This book aims to address the issue, covering diverse forms of IPRs, varied actors in innovation, and multiple case studies from Asia and Latin America. IPRs and their interaction with other factors such as the quality of knowledge institutions (e.g. academia, public research institutes or industrial research centres such as science parks), availability of trained human capital, and networks for research collaboration or interaction (e.g. university-industry research collaboration 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a development context, is the subject of this book.

보험계리사라는 직업



김지현
(AIA생명 재무계리부 이사)

저는 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계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계리사(영어로는 actuary)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그런 직업이 있다더라 정도로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게 뭐냐?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분명

한 사실은, 우리 학부 동문 선배들 중에 이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계리사라고 하면, 어떤 직업인지 궁금해하면서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문기고 지면을 통해 저의 직업, 보험계리사라는 직업의 세계에 대해 간단히 소개 드릴까 합니다. 이런 직업이 있구나, 경제학부 나와서 이런 일도 하는구나,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직업탐색을 하는 후배들에게는 참고 삼을 만한 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보험의 존재이유는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고 그 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아두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긴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측은지심의 발로이기도 하고,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인간들의 협동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사업의 형태로 발전된 것이 보험업입니다. 그리고 업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보험업의 영위가 가능한 원리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입니다. 개개인의 입장에서 발생 빈도 및 심도의 변동성이 큰 사건의 경우에도,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 놓은 집단의 손실은 대수의 법칙에 따라 상당 수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하고, 그 일을 업으로서 하는 곳이 보험회사인 것입니다.

다른 산업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도 상품(보험상품)을 만들어 팔아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조직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이익은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판매가격에서 원가를 차감한 잔액이 이익이라고 하면, 보험상품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측정이 단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른바 보험상품의 “사후원가성” 때문입니다. 보험상품의 원가는 판매 후 보장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험금입니다. 언제 얼마의 금액이 발생할 지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거꾸로 보아, 특정 급부를 특정 기간 동안 보장하는 것으로 설계된 상품을 팔려고 할 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얼마의 보험료를 책정해야 할까요?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선수취

하고 보험금은 나중에 주는데, 미래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금(보험부채)은 얼마나 적립하면 충분한 것일까요? 미래상황이 현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자본을 적립해야 하지는 않을까요, 얼마만큼? 이런 종류의 질문들에 대하여, 통계적, 재무적 분석기법들을 동원하여 답을 제시하는 것이 보험계리사가 하는 일입니다. 한국보험계리사회는 홈페이지에서 “보험계리사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위험관리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있고, 미국의 계리사회도 마찬가지로 “계리사는 risk professional”이라 하고, 또 재미있는 표현으로 “계리사는 미래의 문제들을 오늘 해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의 본질이 미래의 불확실성(위험)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인데, 그런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상품으로 현실화하고 사업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으로 기여하는 사람들이 계리사인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계리사는 “부채전문가”로 통합니다. “보험부채에 대한 문제는 계리사에게 물어라”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보험회사 경영의 핵심이 보험상품의 판매와 그에 따른 부채관리인데, 부채와 관련한 일은 계리사에게 전담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경향은, 계리사의 입장에서서는 회사 내 위상을 강화하고 직업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아주 기쁜(?) 일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보험부채를 측정하는 일도 일반적인 금융자산 또는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리사가 하는 가치평가(valuation)도 결국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할인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보험부채의 특수한 요소들(예를 들면 사람이 죽거나 병에 걸리거나 다치는 문제)들이 추가로 고려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타 금융권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경제학 또는 재무 전공자들이 보험계리 분야에는 드문 것이 제게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실 현재 업계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수학 또는 통계학 전공자들입니다. 제가 보험계리사라고 하면 당연히 수학이나 통계학 전공자이겠거니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에 직접 종사하면서 느끼는 바는, 보험회사의 재무관리에 주된 기여를 하고 또 주요 경영의사 결정에 필요한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 계리사가 하는 일이라는 점이고, 그래서 경제학과 재무/회계를 공부했던 배경이 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학 전공자로서 기술적이고 분석적인 역량이 중시되는 업종에 종사하고 싶다면 보험계리사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델링을 중

아하거나, 데이터 기반 분석이나 숫자 다루는 일을 좋아한다면, 이 업종에서 적성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문성이 강조되고 또 그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계인지라, 현업에 종사하면서도 관련 공부를 꾸준히 병행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계리사가 일하는 곳은 대체로,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계리 컨설팅사, 퇴직연금사업을 운영하는 금융기관 등입니다.

미국에서 직업전망 조사를 하면 거의 항상 보험계리사가 상위 1위에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과 환경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직업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보험계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으로 인지되고 존중 받는 업무환경도 중요한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에게 흔한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많은 보험회사에서 계리담당 임원 및 부사장의 중요한 성과목표 중 하나가 실력 있는 계리사들을 영입하고 자사의 계리 인력을 타사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역량이 중요한 분야라서 남녀차별도 적은 편입니다.

보험계리업계가 고민하고 있고 발전시켜야 할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도 보험부채측정의 기준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가치평가나 위험측정의 정교화를 위한 연구와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ICT 기술 발전, 노령화, 저금리 지속, 금융권역간 경계 모호화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상품개발을 고민하는 것도 계리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내외의 요구는 도전이기도 하지만, 업계 종사자의 입장에서 직업의 전망을 밝게 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역량 있는 우리 동문들도 더 많이 이 업계에 진출하여 업의 발전에 기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사 졸업 (98학번)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 졸업 (2004년)
- 전) Towers Watson 컨설턴트
- 현) AIA생명 재무계리부 이사
- 보험계리사, FSA (Fellow of Society of Actuaries), CFA (Chartered Financial Analyst)

울다가 웃다가, 지구 한 바퀴



김민지 (석사과정)

콜럼버스가 항해를 시작한 것은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면 금방 인도가 나올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서양 항해는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도전이었죠. 하지만 그의 도전 덕분에,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유럽에서 바다를 건너 아시아로 가려면 중간에 아메리카 대륙을 한 번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다 보면 원래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저도 안심하고 한 번 해봤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여행하는 세계 일주요.

지난 2013년 여름, 저는 학부 졸업 후 3년간 근무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직장생활 덕에 돈 있겠다, 남편도 아이도 없으니 자유롭겠다, 여행 후 공부든 일든 무엇을 하기에 너무 늦지 않을 만큼의 나이이겠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세계 일주'라는 목표를 이룰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했지요. 40리터짜리 배낭을 어깨에 메고, 중국으로 가는 편도 비행기 표와 여권을 손에 들고 김포공항으로 가던 날, 이 여행의 끝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다는 점에서는, 저 역시 대서양 항해를 앞둔 콜럼버스만큼이나 무모했던 것 같습니다.

여정은 열차를 타고 대륙을 횡단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기차는 스모그가 자욱한 북경을 떠나 광활한 몽골의 초원을 달렸습니다. 러시아 국경을 넘어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갈아탄 후 다섯 개의 시간대를 지나쳐 유럽으로 갔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여유로운 생활상과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도착한 남미 대륙은 생각지도 못한 풍경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폭포와 빙하, 새하얀 소금 사막, 신비로운 고대 문명의 흔적을 살피며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멕시코의 따뜻한 해변에서 한참을 쉬며 시간을 보낸 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부자 나라의 위엄을 엿보았습니다. 그렇게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까지는 꼬박 7개월이 걸렸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원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석사 과정을 절반가량 마치기까지 어느새 1년 반이 더 흘렀습니다. 매일 낯선 숙소에서 눈을 뜨고, 지금은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색다른 지명 지로 향하는 버스티켓을 사던 여행지에서의 지난날들이 꿈만 같이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행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할 때면, 그 때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만면에 싱글벙글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대장정을 하는 동안 즐거운 일만 있었

을 리가 없었죠? 멋진 풍경 속에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은 인터넷 검색 창에 몇 자만 타이핑만 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 글에서는 여행 중에 있었던 우여곡절과 고생담들을 몇 개 소개해볼까 합니다.

눈물 속 빠졌던 기억을 되짚어 보자니 남미 볼리비아에서의 나날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남미를 방문하는 많은 여행자들은 볼리비아의 소금사막 우유니에 대한 낭만을 갖고 이 나라를 찾습니다. 저 역시 회사원이던 시절, 회사 다니는 게 지긋지긋할 때마다 인터넷에서 우유니의 사진을 찾아보며 그곳의 하얀 소금밭과 파란 하늘 색깔에 위로받곤 했지요. 하지만 2박 3일간 지프차를 타고 고산지대의 덜장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려 우유니를 보러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칠레에서 우유니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는 해발고도 2500미터에 위치한 칠레 북부 아타카마에서 고도 4800미터 가량의 라구나 베르데(초록 호수)까지 단숨에 올라갑니다. 둘째 날에는 지프차가 울퉁불퉁한 바위 길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달립니다. 급격한 고도 변화를 겪으며 지프차에 타고 있는 모든 여행객이 고산증세를 보입니다. 밤이 되면 무시무시한 고원의 추위 때문에 옷을 잔뜩 껴입고 침낭 속에 들어가도 몸이 덜덜 떨립니다. 칠레의 약국에서 몇 안 되는 아는 스페인 단어를 총동원해 겨우 산 고산병 약을 챙겨먹어도, 두통과 피로감, 욕지기는 완전히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되어 마침내 소금 사막의 한 가운데에서 일출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그토록 꿈꿔오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건만, 컨디션 저조로 몸이 마음만큼 안 움직여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높은 해발 고도에 몸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즈음,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할 일이 없겠지 생



각하며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즈로 향했습니다. 외국인용 야간 버스를 타고 밤새 달려 아침이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버스 직원이 승객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지금 라파즈로 향하는 길이 시위대로 인해 막혀 있습니다. 모두 내려 시위대가 막고 있는 곳을 걸어서 통과해야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로 위에서 사람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고, 차들은 길게 줄을 서 꼼짝 않고 서 있습니다. 별 수 없이 승객들은 모두 버스에서 내려 각자의 짐을 짊어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피난을 가던 조상님들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15kg 정도의 배낭을 메고 다니고 있던 저는 속으로 무슨 짐을 버려야 가장 덜 아까울지 배낭 속 물품들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매기며 걸었습니다. 때마침 덩치가 산만한 서양인 여행객이 다시 고산 증세를 보이며 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짐채만 한 배낭은 배낭 주인의 반박에 안 되는 체구의 현지인 직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길거리에 앉아 시위 중이던 군중들은 피곤에 찌든 한 무리의 외국인들을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수도로 향하는 도로를 전부 막고 그들이 요구하던 것은 더 많은 교통수단의 확충. 시위 한번 제대로 하네 생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 시간쯤 걸었을까요,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너무 힘들어 눈물이 핑 돌 때 즈음, 시위대의 밀도가 점점 희박해지고 거리에 차가 한두 대씩 다시 보입니다. 버스 회사 직원이 지나가는 시골버스 한대를 급히 섭외해 우리를 모두 태웠습니다. 좁은 시골버스 안에 덩치 큰 서양 여행객들이 꾸역꾸역 타고, 저도 그 사이에서 짜부러져 탔습니다. 한 시간 가량을 더 달린 끝에 겨우 센트로의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토 하던 서양인도, 짐 밑에 깔려있던 저도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지금은 교통 상황 개선을 향한 그들이 염원이 이루어져, 라파즈의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케이블카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외곽 지대 '엘 알포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라파즈 도심까지 편하게,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출근할 수 있게 되었네요. 언젠가는 꼭 한 번 더 라파즈를 방문해서, 저의 눈물, 콧물을 쏟 빼놓았던 문제의 케이블카를 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배경만 보시고 물에 젖은 시커먼 형체는 눈감아 주세요.

일단 고난의 라파스 입성 스토리를 털어놓고 나니, 다른 곳에서 겪었던 일들은 그다지 별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행이 본래 그렇듯, 좋은 걸 보고 맛있는 걸 먹는 순간은 행복하지만, 볼거리 먹거리를 찾아 낯선 곳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저처럼 돈은 별로 없고 시간은 많은 장기 배낭여행자는 비행기보다는 육로를 이용하여 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겨움에 몸을 배배 꼬면서 좁은 좌석에서 수십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죠. 그 중에서도 페루는 높은 안데스 산맥을 옆구리에 끼고 있는 나라라 이동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페루를 찾는 이유는 잉카의 흔적을 찾아서이고,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잉카 제국의 마지막 도시 '마추픽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추픽추로 가기 위한 여정은 멀고 어렵고 비쌌습니다. 일단 마추픽추와 가장 가까운 마을 '아구아스 칼리엔테스'로 가려면, 이 마을이 워낙 첩첩 산중에 위치한 탓에 중간에 꼭 기차를 타야만 하는데, 이 기차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특히 미리 일정을 계획해 놓지 않고 그때그때 타치는 대로 표를 사려고 하다 보니, 싼 표는 다 매진되어 왕복 기차비로만 150불을 내야 했습니다. 입장료는 또 어찌나 비싼지 훌쩍 6만원이 넘어가고, 입장 쿼터까지 있어서 70자리 남아있는 표를 겨우 구했습니다. 아구아스 칼리엔테스에서 마추픽추 입구까지 가는 버스에도 또 추가비용이 듭니다. 뽀루통해져서 기차를 탔는데 커피와 아침식사, 스낵이 제공되어 그나마 마음이 좀 누그러졌네요. 역시 사람은 '뭘 마이 맥이야' 되나 봅니다.

기차가 한참 산길을 지나 산골짜기 시골마을 ‘

아구아스 칼리엔테스'에 도착하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꼬불꼬불 산길을 한참 올라가다 보면, 산 밑에서는 전혀 짐작도 못했던 위치에서 돌로 만든 커다란 도시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스페인 침략자들이 찾지 못해 1911년까지 숨겨져 있었던 잉카의 마지막 요새 '마추픽추'입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곳입니다만, 이곳을 구경하던 하루는 줄리고 춥고 축축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입장이 가능한 표를 샀는데, 기차가 연착되는 바람에 입장 시간이 아슬아슬해져 심장이 터지도록 고산지대를 전력으로 질주해야만 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위치한 고대 도시인만큼 날씨 변덕이 심해서, 산 중턱쯤 올라가니 세차게 내리는 비를 마주합니다. 판초를 열린 꺼내 입어도 신발과 옷 안이 금세 질퍽질퍽하고 축축해집니다. 비가 그치고 나니 바람이 쐽쐽 불어 손발이 시리다 못해 마비가 될 지경입니다. 마추픽추 내부에서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 탓에 배도 곱습니다. 겨우 구경을 마치고 숙소가 있는 쿠스코로 돌아가는 길, 새벽 다섯 시에 출발해서 하루 종일 덜덜 떨었더니 피곤해 죽겠는데, 버스 운전기사마저도 저만큼 피곤하신지 연신 하품을 하십니다. 가로동도 없는 깜깜한 산길 속을 반 수면 상태로 졸음 운전하시는 기사님 덕분에, 보조석에 앉아있던 저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내내 잠 한숨 못 자고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구구절절 한참을 털어놓았는데도 아직도 못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는 바이칼 호수에서 모스크바까지의 80시간 구간을 타는 동안 몸시도 샤워가 하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노르웨이에서는 핸드폰을 도둑맞았고 미국에서는 비행기를 타면서 화물칸에 부친 짐을 잃어버렸습니다. 중국이니, 몽골이니, 멕시코니 치안이 불안하다고 알려진 나라에서는 정작 별 일이 없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돈 많은 부자 나라에서 도난 사건을 겪는 아이라니에 혀를 내둘렀지요. 1박에 10불짜리 숙소를 찾았다고 좋아했는데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씻지도 못하고 꼬질꼬질한 채 거리를 돌아다니던 일도, 친절한 현지인으로부터 차를 대접받았다가 다음날 하루 종일 실사로 고생했던 일도 떠오릅니다. 7개월간이나 온갖 고생을 사서 했던 제 스스로가 놀랍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진짜

로 저런 여행을 잘도 떠날 결심을 했었다니 미쳤었구나 싶기도 합니다.

어느 여행자든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일은 아쉬우면서도 기쁘게 느껴집니다. 제 경우에는 경비를 아끼느라 워낙 싸고 허름한 숙소들만 골라 묵었다 보니, 따뜻한 물이 팔팔 쏟아지는 수도 아래서 샤워를 하면서 역시 집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맛있는 한국 음식을 원 없이 먹고, 밀린 한국 드라마를 몰아 보는 동안,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에서 온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새까맣게 탔던 피부는 서서히 원래 색깔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리한 서울에서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학기 중에 시험과 과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어디론가 낯선 곳으로 훌쩍 떠나는 모습을 다시 꿈꾸게 됩니다. 세계 일주에 대한 막연한 환상에 휩싸여있던 지난날과 달리, 이제는 집 떠나면 고생인 걸 훤히 알면서도, 아직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지 못한 이국의 풍경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상이 궁금합니다. 인도 대신 캐리비안의 섬에 정착했던 콜럼버스처럼, 다음 여행에서도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시행착오를 또 다시 잔뜩 겪고 오겠지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이가 더 들더라고, 실수와 고생이 두려워 여행 떠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추픽추와 유유니를 여행했던 모든 여행자들은 제가 본 것과 대동소이한 풍경을 사진에 담고 돌아오겠지만, 그 사진을 찍기까지 겪었던 좌충우돌 에피소드들은 이 여행을 저만의 경험으로 만들어 줄 것이니까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케인즈 하이에크』를 읽고



강윤구 (학부 4학년)

지난 6월 중순 마지막 기말고사를 끝으로 1학기로부터 해방된 후, 필자는 중앙도서관을 찾았다. 여유가 생기면 꼭 책을 읽고자 했던 책을 찾기 위해서였다. 학기 중 지인이 추천해주었던 『케인즈 하이에크』라는 책이었다. 책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이 책은 경제학의 두 거장인 케인즈(J. M. Keynes)와 하이에크(F. A. Hayek)의 치열했던 논쟁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두 인물 각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둘 사이에 어떤 논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필자에게 이 책은 굉장한 흥미를 불러왔다. 먼저 이 두 인물과 논쟁의 도입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경제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을 극복하는 데에 혁신적인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케인즈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인물이다. 미시경제학으로 대표되는 고전파 거시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경제학 분야를 창시한 그의 이름을, 고등학교 수업시간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왔을 정도다. 그는 1883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경제학자 네빌 케인즈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원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했으나, 이후 당시 경제학계의 최고 거장이었던 마셜(Alfred Marshall)의 권유로 경제학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

보통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그는 영국 협상단의 일원으로서 베르사유 조약 협상에 참여한다. 그는 승전국들의 독일에 대한 가혹한 배상금 부과에 대해 심한 회의를 느끼고 『평화의 경제적 귀결(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을 저술하게 된다. 이 책에서 그는 독일에 대한 철저한 압박은 차후 독일의 민주주의 붕괴를 야기할 것이라는 경고와 하였고, 실제로 이는 히틀러의 집권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다. 이 저서로부터 케인즈의 철학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훼손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는 우리에게 ‘케인즈주의’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자유주의의 거장임에도 불구하고, 하이에크는 일반 대중에게 케인즈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다. 오히려 한국에서 그는 독점을 옹호하는親재벌적인 인물로 오인 받곤 한다. 필자가 하이에크라는 이름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고교 3학년 무렵이었다. 그의 사상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중, 병역을 이행하던 무렵 우연히 하이에크의 대중적 저서인 『The Road to Serfdom(국내 번역: 노예의 길)』을 읽게 되었고 그의 다른 저서들까지 탐독하게 되었다. 그의 대표적 저서로는 『The Constitution of Liberty』, 『Law, Legislation and Liberty』 3부작, 그리고 『The Fatal Conceit』 등이 있다. 국내에는 번역본이 거의 없거나 절판되었기에 난해한 독일식 영어로 적힌 원서를 읽어야 했지만, 그의 경제철학적 논리에 흠뻑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기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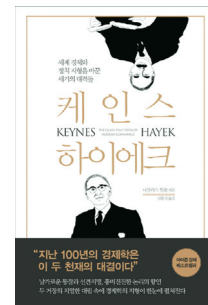
하이에크는 189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하여, 빈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다. 그 이후 경제

학을 공부하면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거장이었던 미제스(Ludwig von Mises)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게 된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오스트리아 학파는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메커니즘을 왜곡시키고 자연스러운 청산과정을 막음으로서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기초하여 경제논리를 구성함으로써, 경제를 하나의 평균화된 단일 주제로 보는 시각을 거부한다. 이런 철학은 자연스럽게 하이에크가 케인즈와 대립각을 이루는 원인이 된다. 이후 하이에크는 영국의 LSE로 건너가 논평 기고 또는 서신을 통해 케인즈와 논쟁을 벌이게 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두 학자들의 점잖고 학문적으로 순수한 토론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하지만 논쟁의 시작은 내 예상과 크게 달랐던 것 같다. 앞서 언급한 『평화의 경제적 귀결』로 일약 스타가 된 케인즈에 비해, 하이에크는 경제학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하이에크는 자신이 경제학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케인즈와의 전투가 필요했다고 생각했고, 케인즈의 신작 『화폐론』에 대한 신랄하면서도 애매모호한 논평을 시작으로 그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당연히 케인즈는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이제 겨우 루키인 경제학자가 이미 경제학계의 거물이 된 자신에게 싸움을 걸다니 말이다. 하지만 그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하이에크의 상대를 해주었고, 이 와중에 그의 최고의 저서인 『일반이론』이 출판된다. 하지만 어쩌서인지 하이에크는 『일반이론』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지 않았고, 학계에서 이는 곧 하이에크의 패배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하이에크는 더 이상 경제학 이론에 대해 연구하지 않았고, 경제학계의 변방으로 다시 밀려나 미국과 유럽 이곳저곳을 떠도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일반이론』에 집착된 케인즈의 이론은 후에 미국의 뉴딜 정책의 사상적 기초를 놓게 되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수십 년간 이어진 미국의 번영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더욱이 케인즈의 제자들은 그의 저서에 나온 내용들을 수리적으로 정교하게 발전시킴으로써 케인즈주의를 전 세계에 설파시키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하지만 케인즈주의의 영광도 영원하지는 않았다. 알려져 있듯이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 이후 미국 경제는 심각한 수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한편 1974년 하이에크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하이에크와 그의 자유주의 이론은 다시 빛을 보게 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 수상 대처는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시 각국에 만연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고자 했다. 대처는 항상 하이에크의 저서를 갖고 다니면서 다른 정치인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수십 년간 다시 자유주의가 힘을 얻음에 따라 탈규제(deregulation)는 점점 강화되었고, 승리의 여신은 하이에크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패러다임은 케인즈주의 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경제 공황이 발생하자 막대한 양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 금융회사들을 구제하고 동시에 이자율 조정, 양적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이 금융회사들



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에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하이에크의 자유주의는 다시 궁지에 몰리게 된 것 같다. 미국 뿐 아니라 현재 여러 국가들도 이자율 조정, 환율 개입 등 정부 개입정책을 활발하게 펴고 있어 패러다임 전환이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왕좌에 오

른 케인즈주의의 득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찰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수십 년에 걸친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하이에크는 정보의 분산성, 제도 진화론 등을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를 옹호하며,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시장의 비효율만을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케인즈의 사상을 전체주의와 같은 ‘집산주의(collectivism)’으로 가는 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케인즈는 “장기에 우리는 모두 죽는다(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는 유명한 말을 통해 하이에크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비꼬았다. 두 사람의 길고 치열했던 논쟁을 보면서, 학문의 발전이란 이와 같은 의견의 충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게 된다. 하이에크와 케인즈의 논쟁을 통해 경제학의 이론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의 지적을 통해 자신의 이론에 있는 허점을 메우고, 다시 상대방에 대한 지적을 통해 다시 이론을 발전시킨다. 이 과정을 통해 학문은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비단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물리학에서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의 사례 또한 그러하다. 천체와 같은 거시적인 세계에 적용되는 상대성이론과, 입자와 같은 미시적인 세계에 적용되는 양자역학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 상대성이론을 만들었던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통해 양자역학을 일생 동안 거부했다. 하지만 학자들에 의해 두 이론을 조화롭게 공존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초끈이론(super-string theory)’이 그 둘을 조화시킬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경제학사의 한 획을 그은 두 인물의 논쟁에 대해 좀 더 일찍 탐구하였으면 어떠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 이 둘의 논쟁은 단순히 경제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큰 사상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4년 동안 전공 강의를 들으면서 경제학의 멋진 이론들에만 심취하여, 정작 그 이론들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수많은 경제학자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다. 뒤늦게나마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왜 경제학을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이 책과 더불어 하이에크의 주요 저작들을 읽어보시기를 권하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글을 갈무리하고자 한다.

경제학부 서포터즈 소개

동아리 소개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서포터즈입니다. 경제학부는 36명의 훌륭한 교수님과 함께 한 학년에 156명, 총 10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소속되어 있는 거대한 학부입니다. 경제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은 전기정보공학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 관계로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더라도 알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자유전공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들의 입장에서 사회대 출신의 경제학 전공생에 대해서 소외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경제학부 교수님들은 매우 훌륭하셔서 학부생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데, 평소 학부생입장에서는 교수님들을 많이 알고 싶어 하나 다가가기에는 매우 먼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학부 서포터즈에서는 학부생들의 친목 그리고 교수님과 선배님과의 만남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느정도 해소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님



초대 지도교수님이신 이준구 교수님은 올해 2월로 명예 퇴임하시고 새롭게 김완진 교수님께서 새롭게 이번 서포터즈의 지도교수님을 맡아주셨습니다. 아직 지도교수님이 되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번 학기에 진행된 진로간담회에서 선배님들의 섭외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서포터즈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저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시는 모습을 보이며, 서포터즈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할지에 대한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십니다. 또한 이준구 교수님도 서포터즈의 지도교수님 자리에서 물러나셨지만 경제학부 서포터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십니다!

스승의 날 행사

평소에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학부생들

입장에서는 교수님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 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학부 서포터즈에서는 이런 학우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자 매년 봄학기에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2~3주 전에 학생들과 같이 하는 자리인 스승의 날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교수님들을 섭외한 뒤에 확정된 교수님을 바탕으로 경제학부 학우들의 신청을 받아서 교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자리에서 교수님께 카네이션과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면서 스승의 은혜를 기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수님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수님께 한 단계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우(經友)의 밤 행사



“경우(經友)의 밤”은 가을학기에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경우의 밤” 행사는 보통 11월 초에 있는데 서울대 기숙사에 있는 글로벌 하우스에서 교수님들을 초청하여 진행을 합니다. “경우의 밤” 행사에는 굳이 경제학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의 밤”은 11월 14일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기숙사 글로벌 하우스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과 함께 이준구 교수님, 이철인 교수님, 이재원 교수님 등 몇 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수님들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많은 조언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경우의 밤에는 여러 가지 소소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 이벤트의 경품이 교수님의 사인이 포함된 경제학 교과서였기에 많은 학생들이 그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재미있었습니다.

선배님과 함께하는 진로간담회



경제학부 학우(사실 모든 학우들)들의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진로문제입니다. 법조계로 나가야 할지, 고시를 쳐서 정부 관직에 나아가지 아니면 한국은행과 같은 금융 공기업으로 가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에서는 매 학기마다 각계 분야에 있는 선배님들을 초청하여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의 진로간담회는 5월 14일, 5월 15일 이틀에 걸쳐서 아시아 연구소 건물에서 진행했습니다. 첫날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시는 이범주 선배님,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시는 이수진 선배님, KDI 연구의원이신 양용현 선배님께서 오셔서 법조계와 KBI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셨고, 그 다음날에는 BK21 연구원 정지영 선배님, 한국은행의 전태형 선배님과 김명철 선배님이 오셔서 금융계에서 일하고 싶은 많은 경제학부 학우들에게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경우 제작

경제학부 서포터즈에서는 매학기마다 경우(經友)라는 잡지를 발간합니다. 경우에는 지난 한 학기 동안 경제학부 전체에서 있었던 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 인터뷰와, 경제학부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에 대한 소식을 담아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의 백미인 특집기사에서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다. 저번 “경우”에서는 수강신청을 특집기사 주제로 삼아서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말고도 십자말풀이와 장학금 소개와 같이 재미와 정보를 주는 코너도 있습니다.

그 외의 동아리 활동



경제학부 서포터즈에서는 위에 있는 활동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1학기 마다 경제학부 서포터즈의 이름으로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장터를 준비하면서 서로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부 과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제학부 특집상 경제학부 자체 과잡이 없고, 경제학부의 소속원들 입장에서 새내기 때 맞춘 과잡을 입기에는 스스로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부 서포터즈에서는 매년 가을에 신청을 받아 과잡을 제작합니다.

또한 교수님과 함께하는 등산, 고궁유람도 매 학기마다 1~2번씩 진행이 됩니다. 등산이 되면 관악산으로 주로 가고, 고궁유람을 하면 창덕궁으로 가는데 가실때마다 교수님께서 맛있는 점심을 쏘십니다. 이번학기에는 이준구 교수님과 창덕궁으로 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학부 서포터즈는 경제학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경제학부 서포터즈에서는 매 학기마다 신입

회원을 뽑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회대나 자유전공학부생 중 14학번 이상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일정은 2학기 초에 경제학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NUECON?fref=ts>)과 스누라이프, 그리고 포스터로 홍보가 될 예정이니 보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1 스승의날 행사

올해에도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스승의 날 기간을 맞아 경제학부 서포터즈에서는 5월 11일 월요일부터 5월 15일 금요일까지 4일동안 걸쳐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총 22명의 교수님을 섭외하였고, 많은 학부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월요일(5월 11일)에는 이철희 교수님, 이근 교수님, 안동현 교수님, 김소영 교수님과 함께, 화요일(5월 12일)에는 이준구 교수님, 전영섭 교수님, 최병선 교수님, 김완진 교수님, 주병기 교수님과 함께, 수요일(5월 13일)에는 김병연 교수님, 최승주 교수님, 김영식 교수님, 류관근 교수님, 양동휴 교수님, 사니다스 교수님과 함께, 목요일(5월 14일)에는 김재영 교수님, 이철인 교수님, 김대일 교수님, 홍기현 교수님, 황운재 교수님, 이재원 교수님과 함께, 금요일(5월 15일)에는 토마센 교수님과 함께 학생들이 모여서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스승의 날이 금요일이고, 교수님들께서도 일정이 맞지 않으셔서 대부분 스승의 날 앞인 월요일에서 목요일에 행사를 진행해서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교수님 별로 7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교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담은 다지세트와 카네이션을 선물로 드리고 교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수님들의 학생 시절 경험담, 재미있는 일화, 그리고 조언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전기금 모금 안내

그동안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경제학부 발전을 위하여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학부의 전통을 이어 받아 앞으로 위상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제학과 경제학부를 둘러싼 주위 환경은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 중심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경제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선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에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학부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동문 여러분의 애정과 정성어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동문께서는 다음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을 하신 뒤 하단의 연락처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 계좌번호 : 079-17-000136
- ▶ 예금주 : 서울대 발전기금
- ▶ 용도지정 : 경제학부

가타 발전기금 관련 문의사항 및 관련내용은 경제학부 사무실의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발전기금 담당자 연락처 전화 : 02-880-6361 E-mail : kang97@snu.ac.kr

BK21플러스 사업단 소식

우리 경제학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작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석·박사 급 창의인재 양성 (BRAIN KOREA 21 PLUS)의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경제전문가 양성 교육연구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도 상반기 학술활동

BK21플러스 사업단은 2015년도 상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 BK21플러스/ 김태성 기념 세미나 23회
- ▶ 경제사 워크숍 11회
- ▶ BK21플러스 Brown Bag Lunch 세미나 6회
- ▶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 7회
- ▶ 실험과학 워크숍 5회
- ▶ 단기해외연수지원 15회
- ▶ 국제 학술대회 2회
- ▶ 특별강연 2회

BK21플러스/김태성 기념세미나

故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경제학부 BK21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구본수 (Monash University)

The role of structural breaks in stochastic volatility models of the risk-return tradeoff in currency markets

Bruno Strulovici (Northwestern University)

On the Design of Criminal Trials: The Benefits of Three-Verdict Systems

전도신 (성균관대학교)

A theory of buyer fragmentation: divide-and-conquer intensifies competition

Lawrence Christiano (Northwestern University)
Leverage Restrictions in a Business Cycle Model

신용철 (York University)

The Euro Effects on Intra-EU Trade Flows and Balance: Evidence from the Cross Sectionally Dependent Panel Gravity Models

손혜림 (University of Hong Kong)

Human Capital Investment When Sheepskin Effects Matter: Evidence from Income Shocks in Indonesia

Allan Miller (University of Haifa)

Aggregation of Intervals

Josep Pijoan-Mas (Center for Monetary and Financial Studies(CEMFI))

Health Heterogeneity and the Preference for Consumption Growth

Larry Karp (UC Berkeley)

Provision of a public good with multiple dynasties

황일우 (University of Miami)

Collapsing Confidence: Dynamic Trading with Developing Adverse Selection

Shachar Kariv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istributional Preferences and Political Behavior

Dan Silverman (Arizona State University)

How Individuals Smooth Spending: Evidence from the 2013 Government Shutdown Using Account Data

Andrew Chesher (University College London)

New directions for IV

Yasutora Watanab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Voter Turnout and Preference Aggregation

Suma Athreya (Brunel University)

Capital and Technology Flows: changing technology acquisition strategies in developing countries

김진엽 (University of Nebraska)

Endogenous Mediator Selection: A Source of Inefficiency in Bargaining

최자원 (한양대학교)

Transition of Son Preference : Child Gender and Parental Inputs in Korea

어윤중 (The University of Sydney)

Time-Varying Trend Inflation and Price Indexation in the New Keynesian DSGE Model

박현숙 (Manhattan College)

Inter-temporal Choices with Temporal Reference Dependence

Fuhito Kojima (Stanford University)

Designing Matching Mechanisms under Constraints: An Approach from Discrete Convex Analysis

Euncheol Shin (Caltech)

Properties of Large Networks and Strategic Interaction

Sung Jae Jun (Penn State University)

Estimating a Nonparametric Triangular Model with Binary Endogenous Regressors

Taisuke Otsu (London School of Economics)

Measurement Errors in Semi/Nonparametric Econometric Models

경제사 워크숍

양동휴, 조성훈 (서울대)

Recovery from the Great Depression in the USA, Britain, Germany and Japan: A Comparative Input-Output Analysis

정안기 (고려대)

전간기 삼릉합자의 장진강 수력개발과 수리권 문제

임채성 (서울대)

식민지기 조선에서의 연초전매업의 전개와 그 경제적 효과

김두열 (명지대)

A Consequence of Coerced Free Trade: Biological Living Standards of Korea during the Port-Opening Period, 1876-1910

손기태 (국민대)

The Relationship of Height to Job Performance and Earnings: The Case of Baseball Pitching

고선 (중앙대)

1960-70년대 혼분식장려 정책

안병직 (서울대)

경제유표(經世遺表)에서의 정전법(井田法)과 양전(量田)

홍석철 (서강대)

Does Old Age Bring Happiness?

조영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일제강점기시대 인물카드의 재검토

이영훈 (서울대)

20세기 전반 언양(彦陽)의 소농사회(小農社會)

유동우 (West Virginia University)

Mapping and Economic Development: Spatial Information Matters

BK21플러스사업단 Brown Bag lunch 세미나

윤종문 (The Credit Finance Research Institution 연구원)

거시적 부도확률이 신용카드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이종호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The Analysis of Sector-Level Catching-up in China by Using US Patent Data

조성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Recovery from the Great Depression in the USA, Britain, Germany and Japan: A Comparative Input-Output Analysis (양동휴, 조성훈)

신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Firm Size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송민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One role of fx reserves and exchange rate volatility

홍지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child obesity when child care matters: Evidence from south Korea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

박민선 (서울대 경제학부)

사교육 소비에 Peer Pressure가 존재하는가?

이소연 (서울대 경제학부)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Cross-Border Portfolio Investment

김현익 (서울대 경제학부)

Consumption and Debt Response to Unanticipated Income Shocks

전계형 (서울대 경제학부)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Cross-Border Portfolio Investment

김명원 (서울대 경제학부)

Is outdated Data Problematic?

이지영 (서울대 경제학부)

Salience and Taxation

이예스터 (서울대 경제학부)

Does Child's Education Affect Old Parents' Health?

실험과학 워크숍

이지영 (서울대 경제학부)

중하위 계층의 저축률증가를 위한 실험

이응익 (서울대 경제학부)

Herd Behavior in Financial Market

이영환 (서울대 경제학부)

Ants Rationality and Recruitment

학생수상 및 장학금

장학금 수혜 현황

2015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826명 중 230명(전액 장학금 36명), 대학원생 184명 중 55명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교외 장학금을 통해 학부생 264명, 대학원생 9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25명의 학생이 근로봉사장학금을, 32명의 학생이 생활비 장학금을 수혜 받았다.

2015학년도 향상장학금 수여식

상대향상 재단을 통해 40명의 장학금을 전달받았으며, 2015년 2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26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향상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교무 및 학생활동

2015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2015년도 전기 졸업식이 2월 26일(목) 14시에 종합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서 경제학부는 4명의 박사, 14명의 석사, 163명의 학사(최우등 60명, 우등 72명)를 배출하였다.

2015학년도 경제학부 대학원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5년도 대학원 후기모집을 실시했다.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전공필 답고사 성적으로 1차 선발한 후,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 석사 26명, 석박통합 1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에서의 연구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 총 9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201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본교는 2015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업을 2015년 6월 22일~2015년 7월 31일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하계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통계학', '정치경제학입문', '경제수학' 및 '계량경제학'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조교 인사이드

2015년 8월 손선혁 조교가 퇴직하고, 정중우 조교가 9월에 신규 임용될 예정이다. 정중우 조교는 손선혁 조교 후임으로 임시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경제학부 전공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경제학부는 2015년 전공신입생을 대상으로 학부안내 오리엔테이션을 2월 25일에 개최하였다. 학부장 및 부학부장을 비롯한 경제학부 교수들이 참석하여 전공신입생들을 환영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환영인사와 함께 학생들이 앞으로 학교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과 알찬 대학생활을 위한 조언을 해 주었다. 행사 후 교수들과 학생들은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스승의 날 행사 개최

경제학부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를 스승의 날 주간으로 잡고 스승의 날 행사 'Meet the professors'를 개최하였다. 우리 학부는 약 1000여명의 학생과 39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 평소 자유로운 사제간의 교류가 힘들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은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 학생들은 담당교수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희망하였다.

국제화 추진 현황

2015년도 1학기 영어강의개설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이근	Economics of Catch-up
이철인	Analysis of Public Policies
박지형	International Trade
Oyvind Thomassen	Mathematics for Economists Econometrics
Elias Sanidas	Microeconomics International Economics Exercises in Economics 1
이지홍	Studies in Microeconomics Topics in Microeconomics
김병연	Studies in Transition Economies and Economic Systems

2015학년도 외국인특별전형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5년도 후기 외국인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서류평가를 통해 2명의 석사과정, 2명의 박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이번 외국인특별전형은 총 16명의 외국인 학생이 지원한 가운데 사우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학생이 선발되었다.

버클리대 경제학과 방문수학 프로그램(BESAP) 학생선발

경제학부는 2015년 3월 선발전형을 실시하여 5명의 학생을 BESAP 학생으로 선발하였다. 선발된 학생들은 2015.2학기~2016.1학기에 파견 예정이다. BESAP은 미국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 버클리대(UC Berkeley)와 협약을 통해 학부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버클리대 경제학과와 봄학기 정규과정에 방문 수학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대 발전기금 출연 현황

- 본음인베스트먼트 250만원(장학)
- 이필상(경제학부 겸임교수) 500만원(장학)

(10면에서 이어집니다.)

김서영 (서울대 경제학부)

Starting Small toward Voluntary Formation of Efficient Large Groups in Public Goods Provision

신명규 (서울대 경제학부)

Institution Formation in Public Goods Games

BK21플러스사업단 장단기 연수지원

단기연수지원(논문발표지원)

이창민 (박사후연구원)

국제학술대회 "16th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Amsterdam"에서 논문 발표

홍지은, 신선희, 고지현, 한준희, 이중민, 나수미, 박혜진 (박사과정)

국제학술대회 "World Congress of Comparative Economics 2015, Rome"에서 논문 발표

조성훈, 송민우 (박사과정)

국제학술대회 "2015 Western Economic Association International Meeting: 90th Annual Conference, Hawaii"에서 논문 발표

정혜원 (박사과정)

국제학술대회 "Conference on Economic Design 2015, Istanbul"에서 논문 발표

이소연 (석사과정)

국제학술대회 "Finance and Economics Conference 2015 in Germany"에서 논문 발표

권혁준, 장희인, 허윤지 (석사과정)

국제학술대회 "East Asian Game Theory Conference 2015, Tokyo"에서 논문 발표

BK21플러스사업단 공동주관 세미나

국제학술대회

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Trade, and Inequality

•일시: 2015년 5월 15일 오후 2:00~6:00

•주최: 서울대 경제학부 BK21플러스사업단, 경제연구소, 본배정의연구센터, 세계경제연구소,

SNU Workshop on Advances in

Microeconometrics

•일시: 2015년 5월 15일 오후 2:00~6:00

•주최: 서울대 경제학부 BK21플러스사업단, 경제연구소, CMMP(Center for Microdata Methods and Practice)

특별강연

[채용설명회] OECD 인사 초청 진로지도 특강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 Career Opportunities at the OECD)

•일시: 2015년 3월 31일 11:00~13:00

•강사: Dr. Sanghoon Ahn (KDI, OECD), Dr. Carlo Menon (OECD)

[여름학기 특별강연] Topics on Development Economics Summer 2015

•일시: 2015년 6월 22일 ~ 2015년 7월 3일(매주 월, 수, 금) 15:00~18:00

•강사: 김현철 교수 (Cornell University), 김성훈 교수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안내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1961년도에 설립되어 50년에 이르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연구소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경제·경영학 관련 전공 교수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금융위기를 보면서 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학부와 더불어 세계 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 : ASP)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제 30기) 입학생을 모집하는 본 과정은 이미 850명 이상의 동문을 배출한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산학협동과정으로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지식 습득과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사회 각계를 대표 하는 지도자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하여, 국가전략을 결정하는 책임 있는 당국자, 금융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은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욱이 본 과정을 통하여 국가정책방향의 주요 의제들이 논의되는 토론의 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는 데 주역을 맡으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ASP과정의 특징

1. **과정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 6개월간에 걸친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2. **동창회 조직** : 본 과정 이수자들 간의 상호교류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하여 동창회를 구성하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소속됩니다.
3. **정기간행물 및 시설 등의 이용** : 수강자들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경제논집, Seoul Journal of Economics 등)과 자료들을 증정 받으며, 본 연구소의 각종 시설(도서실, 세미나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 : 본 과정 수강자들은 경제연구소 및 ASP총동창회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연구소는 주례발표회(학기 중, 매주 수요일 12시), SJE 세미나 및 저명교수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ASP총동창회에서는 조찬세미나, 하계 해외연수 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ASP 입학안내

- | | |
|---|--|
| ① 모집인원 40 명 내외 | ⑤ 이수요건 강의 출석률이 70% 이상일 것 |
| ② 입학자격 1) 국회의원급의 정치인 2) 3급 이상 공무원 | ⑥ 모집안내 - 전화 : (02) 880-5432 - Fax : (02) 875-9867 |
| 3)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간부 4) 금융기관의 임원 | - email : asp@snu.ac.kr |
| 5) 기업의 임원 6)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 - Home Page : http://ier.snu.ac.kr |
| ③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 주소 : 우)151-74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 ④ 모집횟수 연 2회(봄학기 모집 : 1~2월, 가을학기 모집 : 7~8월)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16동 523호) |

ASP 29기 회원명단

- | | |
|-----------------------------------|-----------------------------------|
| 1. 김경숙 케이에스아이(주) 대표이사 | 15. 유준민 엠바캐피탈 코리아 대표이사 |
| 2. 김광훈 NH농협은행 부행장/리스크관리본부장 | 16.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상무/리서치본부장 |
| 3. 김기혁 (주)성우모바일 대표이사 | 17. 윤창희 한국전력공사 처장/서인천지사장 |
| 4. 김병욱 삼양화학공업(주) 전무 | 18. 이용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판매보상처장 |
| 5.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시장구조개선정책관 | 19. 이 형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동산그룹 상무(파트너) |
| 6. 김인회 KT 전무 | 20. 임기근 기획재정부 국장 |
| 7. 김재우 신한은행 업무개선본부장 | 21. 정호건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 8. 박래학 SK하이닉스 상무(마케팅부문 DRAM마케팅그룹) | 22. 정호섭 한국수출입은행 국제투자실장(GI) |
| 9. 박용완 대림산업 재무전략실 상무 | 23. 조국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장 |
| 10. 방진학 삼성생명 상무/강북사업부장 | 24. 조성남 하나금융지주 감사실 상무 |
| 11. 변성렬 한국감정원 상무/수탁사업본부장 | 25. 조영현 IBK기업은행 강서제주지역본부장 |
| 12. 서보람 경기도청 국장/정보화기획관 | 26. 조호연 경향신문 논설위원 |
| 13. 신원정 삼성증권 상무/IB본부장 | 27. 최규연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
| 14. 오승철 포스코그린가스텍 경영전략본부장 | 28. 황석병 신용보증기금 송파지점장 |



(ASP 29기 해외세미나 기념사진)

인적사항이 변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자에게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소식을 보내주시면 다음호 소식란에 게재 하겠습니다.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학부 홈페이지에는 졸업생을 위한 학번별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mail: snu97113@snu.ac.kr 전화: 02-880-6359 홈페이지: <http://econ.snu.ac.kr>